

진정한 일곱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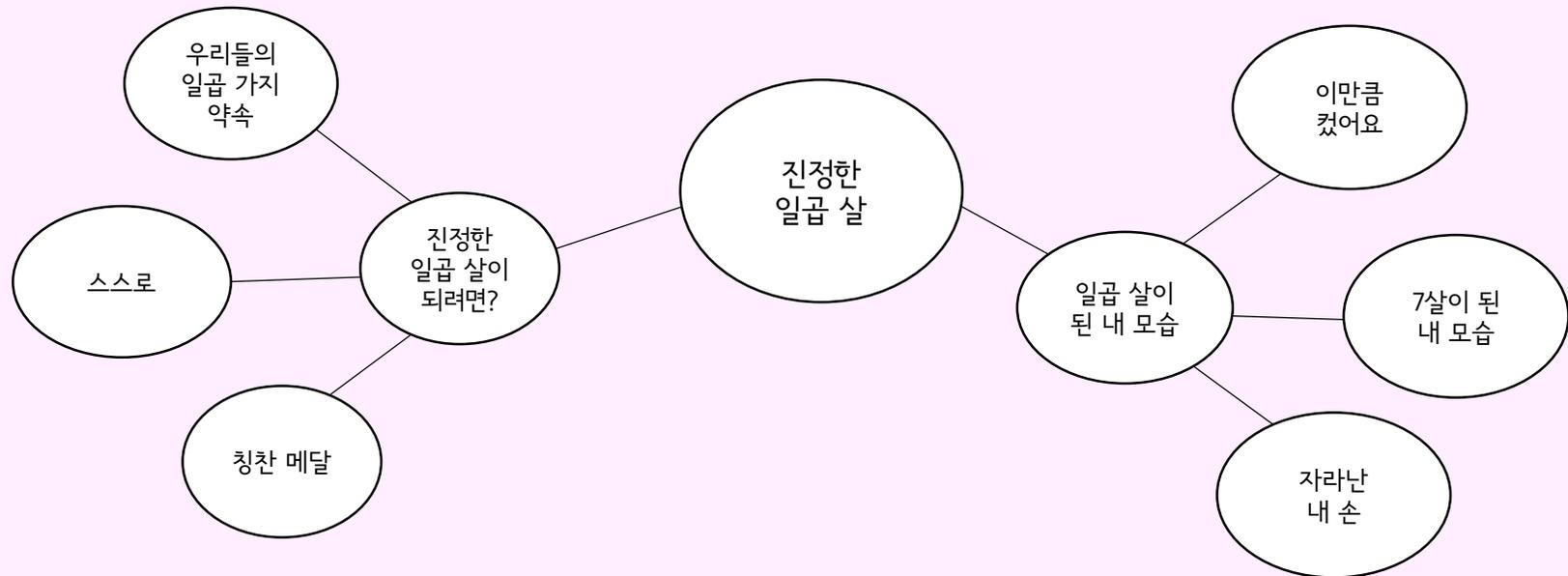


2021.03.15.~2021.04.9.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의 즐거운 유치원 생활

'진정한 일곱 살'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아이들과 함께 “일곱 살이 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진정한 일곱 살은 어떤 모습일까?” 이야기를 나누며 일곱 살이 되어 나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진정한 일곱 살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진정한 일곱 살'이라는 주제로 놀이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03.15. ~ 04.12.)



“저는 이만큼 컸어요!”

일곱 살이 되어 성장한 나의 키와 우리 반 친구들의 키에 관심을 보이고 호기심을 가져 다양한 색의 컵으로 친구의 몸을 따라 놓아 보고 우리들의 키보다 더 높은 성을 쌓아 보며 성장에 관심을 가지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유는 컵이 많이 필요해요!



다양한 색의 컵으로 친구의 키와 몸에 맞게 따라 놓아보며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만큼 컸어요!



친구들과 협동하여 우리 반 친구들의 키보다 높게 쌓아 하나의 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손은 얼마나 컸을까요?”

자라난 내 손을 보며 손바닥에 물감을 칠해 찍어보고 아이들이 도화지 위에 찍힌 나의 손바닥을 탐색해보며 그림을 그리자고 하여 손바닥 위에 연상되는 그림을 자유롭게 그려 표현해보았습니다.



제 손 얼마나 커요?



저는 나비를 그리고 있어요!



내 손바닥과 손가락을 연결시켜 나비, 마녀 손, 번개 손, 꽃발, 화분, 악어, 눈사람, 거미 등을 연상시켜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보며 작품의 제목도 붙여보았습니다.



자라난 내 손에 내가 칠하고 싶은 색의 물감을 칠해 도화지에 찍어보며 아이들의 자라난 손의 크기를 보고 친구들의 손과 비교도 해보며 신체 일부분 중 한 부분인 손을 탐색해봄으로써 성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번개 손이에요!



7살이 된 내 모습

“7살이 되어 달라진 점이 있어요!”

7살이 되어 달라진 나의 모습을 탐색해보고 친구들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미술 재료를 활용하여 머리카락, 눈, 옷 등을 활용해 달라진 내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해보았습니다.

저는 키가 커져서 팔을 길게 붙였어요!



입술은 빨강계 하고 싶어요~



7살이 되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생각해보며 달라진 내 모습을 상상하여 꾸며봅니다.

제 모습 어때요? 예쁘죠?



책 표지 재구성

“진정한 일곱 살은 용기가 있어야해요!”

‘진정한 일곱 살’ 그림책을 살펴보며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상상하는 진정한 일곱 살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책 표지를 재구성해보며 책의 제목처럼 진정한 일곱 살이 되기로 약속도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일곱 살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며 그림을 그려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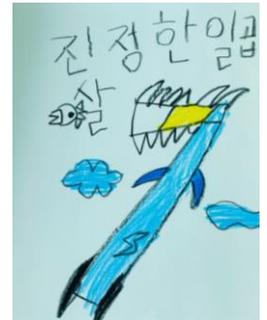
진정한 일곱 살은 씩씩해야 해요!



일곱 살은 밥을 스스로 먹어야 해요~



진정한 일곱살



우리들의 일곱 가지 약속

“진정한 일곱 살은 약속을 잘 지켜야 해요!”

진정한 일곱 살은 약속도 잘 지켜야 한다며 일곱 가지 약속들을 정해 우리들이 정한 일곱 가지 약속판 만들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정한 약속들을 적어 꾸며보고 교실 벽면에 게시하여 약속을 잘 지켜 진정한 일곱 살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요~

스스로
해봐요!

서로서로
사랑해요

양보를
해요

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용기가
있어야 해요!



동시 짓기 - 스스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7살이 되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문장으로 적어보며 ‘스스로’ 동시를 지어보았습니다. 내가 지은 동시를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하여 친구들 앞에서 동시를 낭송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떠올려 적어보며 ‘스스로’ 동시를 지어봅니다.



내가 지은 ‘스스로’ 동시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보며 나와 우리 반 친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동시 낭송을 통해 자신감도 길러 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일곱 살



“우리는 진정한 일곱 살이에요!”

우리가 함께 정한 약속들을 잘 지키고 진정한 일곱 살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글자씩 습자지를 붙이고 매직을 이용해 색칠하며 자유롭게 꾸며본 후, 아이들과 글자를 조합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이라는 글자다!



어떤 글자가 적혀 있는지 읽어본 후, 습자지와 매직을 이용해 글자를 꾸며봅니다.

우리는 일곱 살 할 때 '일'이야!



아이들이 꾸민 글자를 조합하여 '우리는 진정한 일곱 살'을 완성한 후, 창문에 붙여 게시하였습니다.

“식목일은 어떤 날일까?”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해 “식목일은 어떤 날일까?”에 호기심을 가지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목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나무와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식목일을 맞이해 나무를 접어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나무와 꽃에 물을 주며 꽃과 나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칭찬 메달을 만들어요

“저는 친구를 배려했어요!”

슬기튼튼 2반 친구들과 생활하며 나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일과
우리들이 함께 정한 약속들 중에 어떤 약속들을 지켰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어떤 점을 칭찬해주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하며 칭찬 메달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용기가
있어요!



저는 친구들을
배려했어요~



나의 어떤 점을 칭찬해주고 싶은지 생각해보며
칭찬 메달을 만들어 봅니다.

칭찬메달을 만들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멋진 일곱 살이 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반 칭찬 그래프



“저는 용기 메달을 만들어서 용기라고 적었어요 ”



“누구의 메달을 표시했는지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써야해요 ”

“진정한 일곱 살” 을 마무리하며...

슬기튼튼 2반 친구들과 ‘진정한 일곱 살’ 그림책을 통해 일곱 살이 되어 달라진 나의 모습과 나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며 진정한 일곱 살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약속들을 함께 정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며 진정한 일곱 살이 될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을 응원합니다.